



해수부·외교부가 굳게 손잡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향해를 관리한다.

- 홍해·아덴만 항행 우리 선박 안전 점검 및 외교부-해수부 핫라인 개통
- 우리 선원·선박 안전을 위해 외교부-해수부 간 협력체계 강화 결의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5일(월) 오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양 부처 간 협업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홍해·아덴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원·선박의 안전을 점검했다.

송 차관은 “민생을 살리는 경제활력은 안전한 해양수산업으로 뒷받침된다며, 양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강 차관은 “우리나라로 드나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.7%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, 해양 사건·사고 대응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국민안전, 경제안보 그리고 민생 모두와 직결된 사안”임을 강조했다.

※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△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(6.21.) 개최, △민관군 해적대응 진압 훈련(6.13.) 및 외교부 신속대응팀 모의훈련(6.24-28.) 실시, △해외재난 대응 인사 교류(8월 중) 추진 중

이날 양 부처는 해외안전상황실(외교부)-종합상황실(해수부) 간 핫라인(Hot-line, 직통전화)을 개통했다. 이를 통해 양 부처 간 선박의 해상안전에 대한 최신정보 교류가 가능해지고, 우리 선박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신속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 강 차관은 홍해·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

제42진 대조영함과 통화하고, 우리 선원·선박 보호와 안전한 해상교통 물류 확보를 위한 전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. 이어 아덴만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고, 외교부와 해수부가 합심하여 24시간 해상 사건·사고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렸다.

※ 최근 홍해·아덴만 내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,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 증가 등 외항 우리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 주관으로 홍해·아덴만 해상안전 관계 부처 상황 평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양 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

송 차관은 강 차관이 해수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박 안전을 직접 챙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, “우리 선원·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,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외교부	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	책임자	과 장	강영미 (02-2100-8565)
		담당자	사무관	김한별 (02-2100-6901)
해양수산부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	담당자	서기관	임병준 (044-200-589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